

LG전자, 올레드 TV로 韓 전통 수묵 추상화 선보인다

‘프리즈 런던’ 글로벌 파트너로 참가
故 서세옥 화백 작품·다큐 등 전시
아티스트-관객 토크세션도 열어

LG전자가 세계적인 아트페어 ‘프리즈 런던’에서 압도적인 화질의 LG 올레드 TV를 통해 한국 전통 수묵 추상화의 감동을 전한다.

LG전자는 오는 19일(현지시간)까지 런던 리젠트 파크에서 열리는 프리즈 런던 2025에 글로벌 파트너로 참가, 수묵 추상의 창시자로 불리는 故 서세옥 화백(1919~2020)의 작품을 LG 올레드 TV로 전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서화백의 장남인 미술가 서도호 씨가 ‘순환’, ‘기운생동’, ‘무극’, ‘산정어록’ 등 평면 회화인 원작을 생동감 넘치는 짧은 애니메이션 형태로 재해석한 미디어 아트를 선보인다. 차남인 건축가 서을호 씨는 전시 공간 연출을 맡았다.

전시장 안쪽 우측 벽면에서는 83형



LG전자가 프리즈 런던에서 수묵 추상의 거장 故 서세옥 화백의 작품을 재해석한 미디어아트를 선보인다. 사진은 반투명 패브릭과 투명 올레드 TV, 올레드 에보를 나란히 배치해 하나의 작품처럼 구성한 LG전자의 전시 공간. /LG전자

올레드 에보를 통해 서세옥 화백이 생전에 작업하는 모습이 담긴 다큐멘터리를 상영한다. 좌측 벽면에는 ‘즐거운 비’ 원작을 전시한다.

프리즈 런던 주간 시내 곳곳에서 다채로운 아트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최근 LG전자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은 내셔널 갤러리 런던에서 15일 LG 올레드

아트 이브닝’을 개최, 서도호 씨가 미술계 인사들에게 아버지의 작품을 미디어 아트로 재탄생시킨 과정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또 주영한국문화원에서는 LG TV를 통해 서세옥 화백의 작품과 관련 다큐멘터리를 상영하는 특별 전시를 연다. 한국 미술의 전통성과 창의성, 예술과 기

술의 조화를 런던에 소개할 예정이다.

프리즈 런던을 맞아 LG전자의 지원으로 진행되는 내셔널 갤러리 런던의 ‘뜻밖의 관점’도 10월 한 달 간 매주 열린다. 아티스트와 관객이 작품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토크 세션이다.

LG전자는 2022년부터 프리즈 글로벌 파트너로 참가하는 등 예술 작품을 생생하게 구현하는 LG 올레드 TV의 압도적인 화질을 바탕으로 ‘아티스트에게 영감을 주고, 예술 애호가들이 선호하는 올레드 TV’라는 브랜드 리더십을 공고히 하는 ‘LG 올레드 아트’ 프로젝트를 지속 전개하고 있다.

LG전자 오헤원 MS경험마케팅 상무는 “프리즈 런던 주간에 전시를 비롯한 다채로운 올레드 아트 프로젝트를 통해 LG 올레드 TV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선보이며 K-아트의 위상을 높이고 브랜드 리더십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이창용, 한중일 중앙은행 총재회의 참석

한국은행은 이창용 총재(오른쪽)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그룹(WBG) 연차 총회 중에 열린 제14차 한중일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은행



지엄한마음재단, ‘행복나눔밥차’ 진행

지엄한마음재단이 지역사회를 위한 무료급식 봉사활동 ‘행복나눔밥차’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난 15일 인천광역시 문학동 삼호어린이공원에서 지역 내 취약 계층을 위해 진행됐으며 GM 임직원과 자원 봉사자들은 따뜻한 한 끼를 정성껏 준비하고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에 온기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한국GM

대한항공, ‘마젤란 어워즈’ 6관왕 달성

3개 부문 6개 항목서 최고상 ‘금상’
글로벌 서비스·마케팅 인정 받아

대한항공은 미국 여행 전문 매체 ‘트래블 위클리’가 주관하는 2025 마젤란 어워즈에서 6관왕에 올랐다고 16일 밝혔다. 마젤란 어워즈는 항공사, 호텔, 리조트 등 글로벌 여행 산업 전반을 대상으로 브랜드, 서비스, 마케팅, 디자인 등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인 기업과 기관을 선정해 시상한다.

대한항공은 항공사 종합(국제항공사·서비스), 항공 서비스 요소(일등석·비즈니스석·기내 식음 서비스), 항공사 마케팅(모바일앱) 등 3개 부문 6개 항목

에서 최고상인 금상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서비스 품질과 마케팅 경쟁력 등 다방면에서 대한항공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대한항공은 올해 새 기업이미지(CI) 발표에 맞춰 기내용품들을 새롭게 단장하는 등 고객 중심 서비스를 꾸준히 펼친 성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대한항공은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비해 공식 홈페이지는 물론 모바일 앱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앞으로도 고객 서비스 품질을 지속 업그레이드해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항공사로 더욱 발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고려아연, 고려인 가족돌봄아동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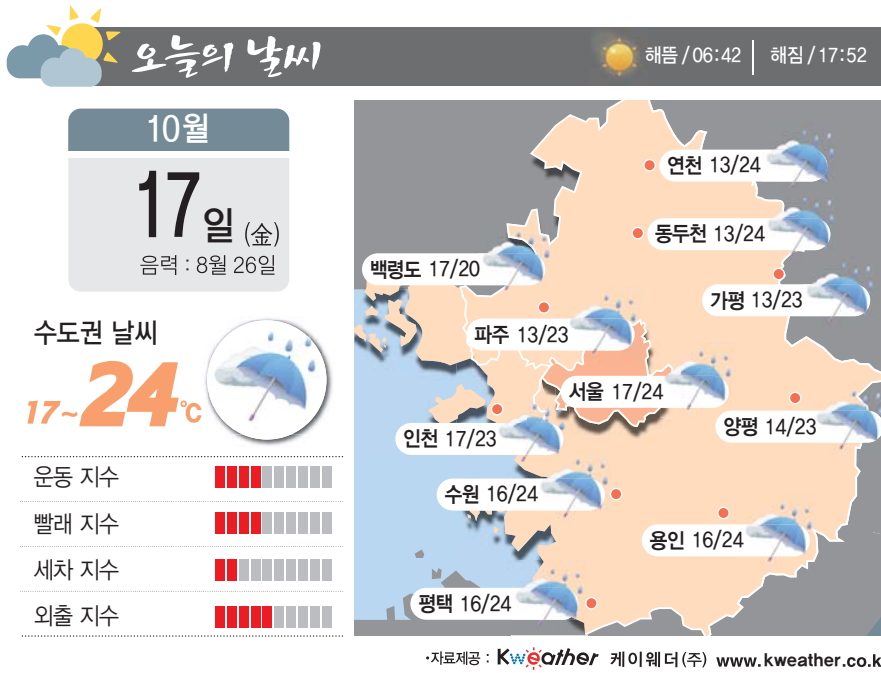
광복 80주년… 후원금 3500만원 전달

고려아연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고려인 가족돌봄아동 지원사업(고려가 고려에게)’을 위한 후원금 3500만원을 초록우산에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한 고려인은 옛 소련(오늘날 러시아·중앙아시아 일대) 지역에 살다가 한

국으로 입국한 한인들을 뜻한다.

고려아연은 이러한 재한 고려인 중에서도 부모·조부모를 돌보며 경제적·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가족돌봄아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해당 지원사업을 초록우산에 제안했다.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비 지원, 저소득 위기가정 경제적 지원 등이 담겼다. /양성운 기자



롯데百貨, 국내 최대규모 웹툰행사 열어

오는 26일까지 ‘월드 웹툰 페스티벌’

롯데백화점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손잡고 국내 최대 규모 웹툰 행사인 ‘2025 월드 웹툰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롯데타운 잠실’에서 대규모 팝업과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결합한 형태로 진행된다.

올해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롯데월드몰에서 이달 16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팝업 행사다. 35개 인기 웹툰의 굿즈를 동시에 선보이는 유통사 최초의 행사로, 5개 층에 걸쳐 11개의 팝업 공간에서 1200여 종의 IP 테마 굿즈를 만나볼 수 있다.

네이버웹툰 ‘마루는 강쥐’ 팝업에서는 100여 종의 굿즈를, ‘외모지상주의’ 팝업에서는 최초 공개 상품 90여 종을 포함한 700여 종의 굿즈를 공개한다. 또

한 ‘전지적 독자 시점’, ‘나 혼자만 레벨업’ 등 인기 웹툰의 한정판 굿즈도 선보인다.

이와 함께 이달 19일부터 22일까지는 롯데월드 아이스링크와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에서 공식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이 열린다. 웹툰 기획 전시를 비롯해 웹툰 작가의 ‘라이브 드로잉쇼’, 광진 작가 사인회, 유명 제작자 토크 콘서트 등이 진행되며, 22일 저녁에는 ‘2025 월드 웹툰 어워즈’도 예정돼 있다.

롯데백화점 권아미 영컬처팀 차프바 이어는 “롯데타운 잠실은 계절마다 시그니처 행사를 선보이며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복합 테마 단지로 성장 중”이라며 “이번 월드 웹툰 페스티벌 개최로 웹툰 마니아뿐만 아니라 웹툰에 관심이 있는 내외국인 관광객의 발길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한국P&G, 생활용품·점자태그 기부

한국P&G가 지난 15일 ‘흰 지팡이 날’을 맞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 다우니 섬유유연제, 헤드앤숄더 샴푸 등 약 2200만원 상당의 자사 제품을 기부했다고 16일 밝혔다. 다화용 실리컨 점자 태그, 점자 스티커 및 저시력자용 스티커 등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시각장애인 친화 제품을 함께 지원한다. /한국P&G



아워홈-NH농협銀, 우리쌀 소비 캠페인

종합식품기업 아워홈이 NH농협은행과 협력해 우리쌀 소비 촉진을 위한 특별 캠페인 ‘월간미술행(월간미술행)’을 진행한다. 이번 협업은 아워홈 단체급식부문의 ESG 캠페인 ‘가치 EAT GO’의 일환으로, 국산 쌀 소비를 활성화하고 농가와의 상생을 실천하기 위해 기획됐다. /아워홈

인사

◆ 농림축산식품부 ◇실장급 승진 △농업혁신정책실장 김정옥

부음

▲ 장신석 씨 별세, 이영자 씨 남편상, 장성진·성철(공론센터 소장) 씨 부친상 = 16일, 일산백병원장례식장 7호실, 발인 18일 오전 5시 30분, 장지 제주도 선영. 031-910-7444



15일 서울 중구 푸르지오홀에서 장애인 클래식 연주단 OCI드림앙상블과 멘토들이 공연을 하고 있다. /OCI홀딩스

호응을 받았다. 또한 최근 인기를 끈 영화 케이팝 대문 헌터스의 OST ‘Golden’을 연주하며 클래식과 대중음악을 넘나드는 무대로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를 완성했다.

OCI드림 이지현 대표는 “단순한 발표회를 넘어 음악을 통한 나눔과 성장의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로 앞으로 이들에게 많은 관심과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OCI홀딩스, 장애 청년 클래식 연주회 성료

OCI드림앙상블 정기연주회

OCI홀딩스는 15일 서울 중구 푸르지오홀에서 ‘제3회 OCI드림앙상블 정기 연주회 사운드 오브 드림 앙상블(Sound of Dream Ensemble)’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OCI드림앙상블(OCI Dream Ensemble)은 OCI그룹의 사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OCI드림이 지난 2019년부터 음악을 전공한 장애 청년들의 예술적 자립과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클래식 연주단이다.

이번 공연에는 정식 단원 5명과 함께 새로 도입된 교육 단원 제도를 통해 선발된 단원들이 합류해 총 8명의 연주자가 무대에 섰다.

이들은 낭만주의 거장 로베르트 슈만의 ‘피아노 5중주(Op. 44)’를 비롯해 다양한 곡을 선보이며 관객들의 뜨거운